

◎ 發刊辭 ◎

白村金文起先生宗統考證錄 發刊에 즈음하여

死六臣의 巨頭 忠毅公 白村 金文起先生은 忠과 孝 그리고 學文으로 名聲이 높아 온 國民의 敬慕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貫鄉과 宗統이 잘못傳해지고 있어 後孫된者 痛歎을 禁할바 없다.

晩時之歎의 感은 있으나 白村公의 宗統에 對한 考證文獻을 拔萃하여 單卷에 收錄 世에 내 놓게 됨을 多幸으로 生覺하는 바이다.

金寧金氏中 忠毅公派은 宗統이 될수없으며 白村公의 宗統은 慶州金氏 白村公派임을 다 시한번 闡明한다.

只今으로부터 一四八年前 死六臣 白村 金文起 後孫으로 自處한 似而非孫들은 軍役을 免하려고 온갖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先祖의 墓所에 祭祀를 지내는等 權力과 金錢을 動員하여 宗統을 어지럽혔으나 永同에 사셨던 成彦先祖님을 위시하여 先祖들의 피나는 錚辭로 知禮에 사는 致旭(似而非孫) 등을 嚴히 매질하여 귀향을 보내고 가자로 만든 族譜는 거두어 불을 태우고 祠宇는 헐어버린뒤 그 顛末을 報告하라는 判決을 받은지 百數十年이다.

이 참담한 暗黑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 白村金文起公의 正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를 겪었고 심지어는 祖上까지 강제로 빼앗기는等 罪와 눈물로 점철된 歷程을 이제와서 새삼 되새기기 괴로운 일이나 오즈음 또다시 옛 우리先祖님을 괴롭혔던 무리들의 孫들이 史實을 虛僞날조한 가짜 族譜를 만들어 先祖님의 높으신 忠節을 오욕하고 저의 先祖墓碑를 破壞하고 새로 立碑하여 白村公의 宗統인양 世人의 耳目을 현혹시켜 宗族史에 큰 誤謬를 犯하고 있어 宗統으로서 江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보고 當할 수만 없어 全宗人이 蹶起하여 다시는 似而非孫들이 받을 불이 지 못하도록 우리世代에 宗統을 正立해야 하겠다는 굳은

決議와 아울러 宗統正立委員을 選出하였다.

첫째 法定判決을 받기위해 訴訟을 提起하고 둘째 이 事實을 世上에 公開하여 公論을

集約하여 似而非孫들이 다시는 白村公의 後裔라고 하지 못하도록 할것이고 셋째 白村公

의 正統後孫만으로 團合된 大同譜를 發行키로 決議하였다.

三年余에 걸쳐 歷史記錄을 비롯하여 其他公家文蹟에서 白村公의 宗統에 對한 考證文獻

을 三〇余種을 拔萃하여 一九八二年 一月에 淸州地方法院合議部에 訴狀을 提起하여 一九

八二年十一月十八日에 勝訴判決을 받아 社會公論을 集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始祖 闕

智로부터 系代를 研究하여 系譜를 發行한 凡新羅金氏宗務院으로부터 下達된 公文의 內容대로 우리

慶州金氏白村公派가 白村公의 正統임을 公認하였고 血孫만이 團合된 族譜 그리고 三十余種의 宗統

考證文獻을 비롯하여 訴訟記錄全部를 別卷에 收錄하여 完刊케 됨은 우리 宗門의 一代快事라 아니할수 없다.

이번의 快事가 우리 宗中中興의 새로운 契機가 되어 그 옛날 先祖님들이 남기신 홀

륭한 遺德과 國家社會에 貢獻한 빛나는 業蹟을 더욱 빛낼 수 있는 後孫들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七旬의 몸으로 暴寒酷暑를 不拘하고 全國을 巡回 考證文獻 拔堀에 心血을 傾

注하신 會長님 그리고 會長과 常任副會長 吉柱를 補佐하며 家事不拘하고 最先頭에서 生命을 걸고

鬪爭한 事務局長 樹煥 淳昌 基浩 또 宗孫 永植 物心 兩面으로 協助와 聲援을 아끼지 않으셨던 光州

昇濟 相淳 正潤 濟元 濟炫 炳烈 基喆 宗親을 위시하여 各門中 代表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면서

頭書없는 拙文으로서 訴訟推進委員 一同이 發刊辭에 갈음한다

一九八三年 一月 日

訴訟推進委員 一同 謹書